

학생이 주인 된 ‘아델란테’, 경희레드로 물들었다

최고훈 기자 cgh99915@khu.ac.kr
황인찬 기자 phillip0503@khu.ac.kr

【국제】 ‘Adelante’(아델란테)로 새롭게 명명된 국제캠 대동제가 환호 속에 무사히 마무리됐다. 처음으로 맞춰진 축제 컬러는 ‘경희레드’였다.

초석 다진 ‘아델란테’ 경희레드로 가득차

축제 첫날부터 총학의 무료 배부 굿즈를 수령하기 위한 줄은 인산인해였다. 학생회관과 외국어대학 앞에 마련된 티셔츠 배부처 줄이 100m가량 늘어져 있었다. 오랜 시간 기다려 굿즈를 수령한 김영채(국제학 2023) 씨는 “후면 디자인이 예뻐서 줄 선 보람이 있었다”며 “티셔츠를 통해 축제 기분을 느낄 수 있었고 소속감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국제캠 총학 김미소(한국어학 2021) 회장은 “아델란테라는 이름으로 초석을 다진 첫 봄대동제인 만큼 구성원이 같은 옷을 입고 소속감을 느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시작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메인무대가 설치된 대운동장 주변에선 축제 티셔츠를 입은 학생들이 학교를 경희레드로 물들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경희인들의 축제 뜨거웠던 학생 부스 열기

멀티미디어교육관 앞에는 각 학생 부스에서 준비한 이벤트를 즐기는 학생들로 활기가 넘쳤다.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생위원회 부스에서는 다트 던지기과 퀴즈로 웃음꽃이 한창이었다. 부스를 준비한 김아영(화학공학 2022) 위원장은

“지난해보다 부스 분위기가 안 좋다는 말이 많아 걱정했었는데 우려와는 달리 많은 분이 찾아주셨다”고 말했다.

‘뽕뽕 희랑 오락실’이란 이름으로 미니 게임을 운영하는 부스도 있었다. 희랑 부스를 기획한 김하영(시각디자인학 2020) 씨는 “코로나 학번이라 마스크를 끼지 않고 축제 부스를 운영하는 게 처음인데, 많이 찾아주셔서 활기차다”고 말했다.

고개를 돌려보니 직접 만든 수제 과자가 진열돼 있었다. 생명과학대학 제과제빵 동아리 ‘빵실빵실 베이커리’ 허윤정(식품생명공학 2022) 씨는 “작년엔 비가 와서 아쉬운 점이 많았고, 올해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반응이 좋다”고 했다.

예술디자인대학 그림동아리 Pen 부스 앞엔 페이스페인팅을 받으려는 학생들로 붐볐다. 정주희(시각디자인학 2023) 씨는 “대학 축제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뜻 깊다”고 말했다.

대운동장 가장자리에는 푸드트럭이 위치했다.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음식 모두 다화용기를 사용했다. 음식을 먹은 뒤 ‘아, 반납!’이라고 적힌 다화용기 반납함에 차례대로 반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화용기 수거함을 정리하는 자원봉사자 박상민 씨는 “학생들과 푸드트럭 모두 다화용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고 있고 반납도 잘 해준다”고 말했다.

각 단과대학 앞에선 단과대별 동아리와 학생회 부스에 참여하는 학생이 보였다. 스페인어학과, 중국어학과 합동 부스에선 딱지치기, 공기놀이, 물총 싸움 등 추억의 놀이와 팔빙수, 슬러시 등 음식도 먹을 수 있었다. 부스에서 만난 이서율(스페인어학 2023) 씨는 “오가는 사람에 비해 관심이 적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작년에 비해 활발한 행사가 이뤄져 하나로 뭉치



학생회관 앞 총학 수령처에 굿즈를 받기위한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최고훈 기자)



홍보대사 희랑 부스에서 학생들이 미니게임을 즐기고 있다. (사진=황인찬 기자)



응원단 컬스라가 호응을 이끌어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사진=황인찬 기자)



축제의 하이라이트 불꽃놀이가 무대 위 하늘을 수놓고 있다. (사진=황인찬 기자)

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했다. 공과대학 학생회 부스에선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 게임이 한창이었다. 옆에선 ‘유사과학’이라는 이벤트로 오늘의 운세를 뽑으며 환호하는 학생도 있었다. 문정현(정보전자신소재공학 2023) 씨는 “축제에 대한 로망이 컸는데 직접 부스를 운영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학에 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이 주인 된 메인무대 큰 함성으로 마무리된 ‘아델란테’

해질녘, 노을이 하늘을 물들일 때쯤 대운동장 메인무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학생 공연이 한창이었다. 축제 이틀간 총 15개 팀이(▲췌더부리부리 ▲우리도 빌어줘요! ▲유희 ▲S.N.N.A ▲피날레 ▲아람소래 ▲04:19 ▲날다람쥐 ▲깨뮤(CHEMU) ▲갑진년의2024 ▲김예지 ▲FL:ex ▲바람개비 ▲아델레미 ▲BMB) 화려한 무대를 장식했다.

올해 축제에선 메인무대 위치를 조정해 처음으로 넓은 스탠딩 존을 조성했다. 스트릿댄스 중앙동아리 ‘BMB’ 김세연(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24) 씨는 “새내기에 이렇게 큰 무대에 오르는 것이 굉장히 떨렸지만, 서로 격려해 긴 시간 연습했던 것을 모두 보여줄 수 있었다”며 “많은 응원을 들으니 긴장이 풀렸다”고 말했다.

응원단 컬스라가 ‘경희의 이름으로 전진하라’는 구호를 외치자 모두 따라 외치며 분위기는 한껏 뜨거워졌다. 축제의 마지막,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자, 무대를 즐기던 학생들도 잠시 멈춰 시선을 하늘로 옮겼다. 현장에서 만난 박한빈(건축공학 2023) 씨는 “이번 축제가 정말 알찼던 것 같다”며 “마지막을 불꽃놀이로 장식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인택트 2024

취업·직무 박람회

참여대상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 (만 34세 이하)
워크넷 유료회원 필요시 워크넷에 별도 신청 (워크넷 - 고용복지플러스 - 취업특강(서울형 서울서부) - 해답일 프로그램 신청)
재학생 및 졸업생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유료회원 필요시 별도 신청 (OR신청 바로가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보내 드립니다.

6월 24일(월) ~ 6월 27일(목)

주최 |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 명지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후원 | 서울특별시 | 문의 | 032-710-7790

10:00~12:00 **동기부여특강** 나워먹고 싶지? 바른취업연구소 대표

6.24 (월) 13:00~15:00 **취업특강** 히트챌린저(사) & 지원전략 전 삼성 계열사 인사팀장

16:00~18:00 **취업특강** 구글에 취업하고 싶니? (링크드인을 활용한 취업전략) 링크드인 한국파트너사 대표

10:00~12:00 **직무특강** MZ세대에게 필요한 금융상식 및 금융권 취업전략 전 SC제일은행, 전 교보생명

6.25 (화) 13:00~15:00 **직무특강** K-엔터 직무 소개 YG엔터테인먼트

16:00~18:00 **취업특강** 스타강사가 들려주는 2024 하반기 취업트렌드 및 취업전략 Weport 휴기찬장사

10:00~12:00 **직무특강** 2024 하반기 공기업 취업전략 및 꿀팁 전 안전보건공단

6.26 (수) 13:00~15:00 **취업특강**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직무이론서 A to Z 전 CJ

16:00~18:00 **직무특강** 퍼스널브랜딩과 디지털노마드 전 NS홈쇼핑, 전 BBDO KOREA

10:00~12:00 **취업특강** 나를 브랜드화하라(맞춤형 포트폴리오 작성법) 전 삼성 계열사 인사팀장

6.27 (목) 13:00~15:00 **취업특강** 2024 하반기 합격하는 유망직업 면접전략(직무역량 SIPT) 전 CJ

16:00~18:00 **취업특강** AI시대, 미래직업과 빅데이터 전 삼성전자

6.24 (월) ~ 27 (목) 11:00~12:00 **그림컨설팅** 명지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